



2026. 9. 2 (수)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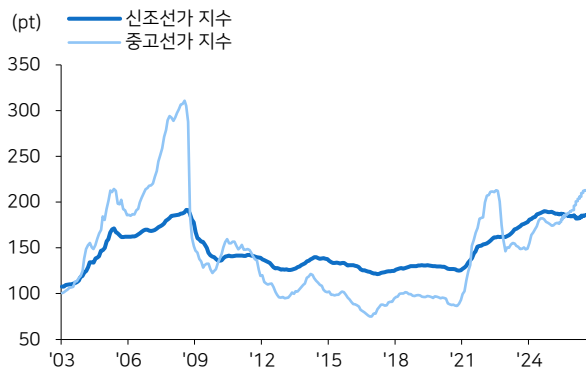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6.3p (+0.6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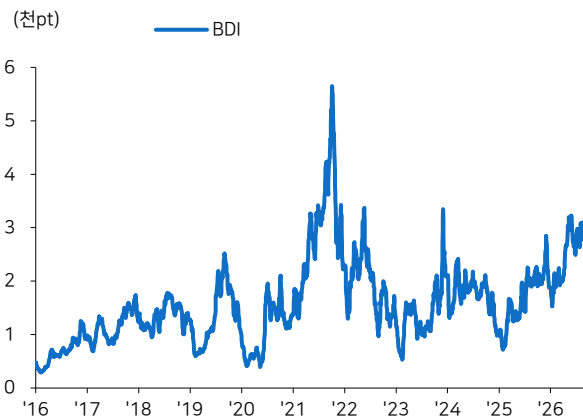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30.0달러 (+9.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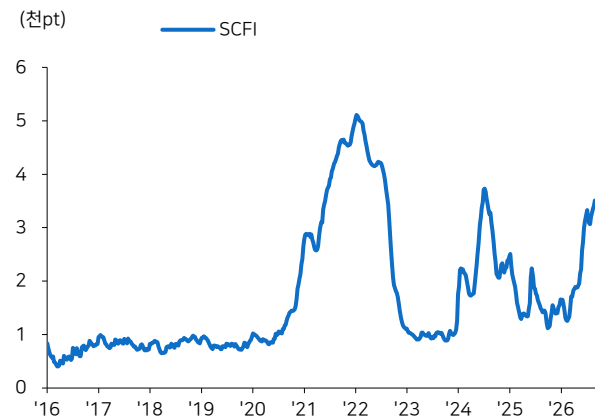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3,186.0p (+79.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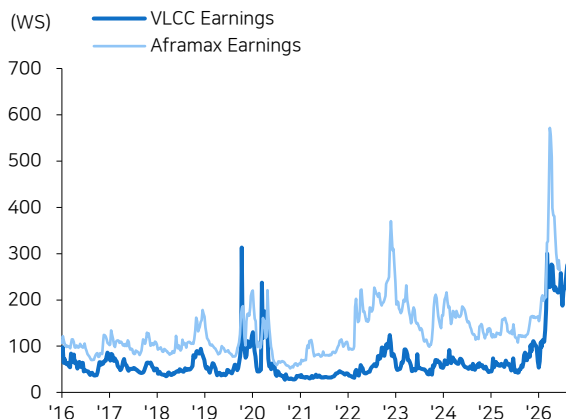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509.5 (+99.9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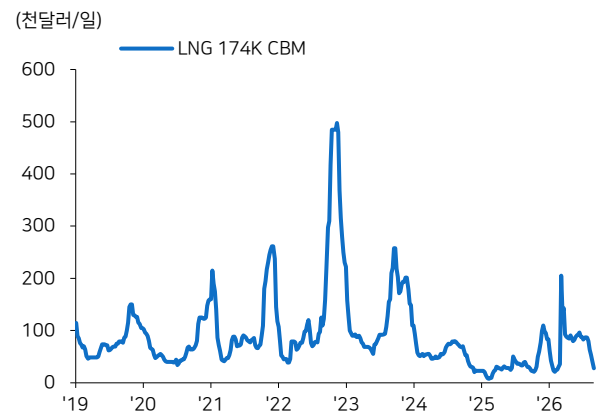
VLCC Spot Rate

401.7WS (-2.3p WoW)



LNG Spot 운임

28.0천달러 (-14.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내년 국방예산 73 조원, 전년비 8.2% ↑...핵잠 1,000 억원 첫 반영 (뉴시스)

<https://zrr.kr/3xxvtA>

정부가 2027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증가한 73조2,777억원으로 편성했으며, 방위력개선비는 13.8% 늘어난 22조7,112억원 규모로 확대됐다고 보도됨. 내년 예산에는 KF-21 양산 예산 3조3,000억원과 핵추진잠수함 설계 예산 1,000억원이 처음 반영됐으며, L-SAM · MUAV · 드론 · 레이저 무기 등 첨단 전력 투자도 대폭 확대됐다고 전해짐. 정부는 AI · 유무인 복합체계와 미래 국방기술 개발, 장병 처우 개선 및 방산 중소기업 지원을 병행해 한국군 전력 강화와 방산 경쟁력 제고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짐.

HD 현대중공업 노사 임단협 결렬...노조, 2일부터 순환 파업 (매일경제)

<https://zrr.kr/zW1end>

HD현대중공업 노사가 18차 임단협 교섭에서도 합의에 실패했으며, 사측의 1차 제시안을 노조가 반격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보도됨. 노조는 2일부터 10일까지 단계별 순환 부분파업에 돌입하고, 15일에는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해짐. 다만 노사는 파업과 별개로 교섭을 지속하기로 했으며, 본교섭을 주 3회로 확대하고 대표자 · 실무교섭을 병행해 협상을 이어갈 방침으로 알려짐.

Japanese giant behind container ship newbuilds at Samsung (TradeWinds)

<https://zrr.kr/VhOyYI>

삼성중공업이 Mitsui & Co로부터 13,0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수주했으며, 계약 규모는 4,455억 원, 인도 시점은 2028년 말로 보도됨. 이번 선박은 스크러버를 탑재한 재래식 연료 추진 사양으로, 장기 용선 계약을 전제로 발주되었다고 전해졌으며, 업계에서는 Maersk를 용선사로 지목하고 있다고 전해짐. 이번 수주로 삼성중공업의 올해 상선 수주 실적은 36척, 61억 달러를 기록해 연간 상선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알려짐.

Dorian LPG linked to VLGC trio at Hanwha Ocean (TradeWinds)

<https://zrr.kr/hyF4LE>

Dorian LPG가 한화오션에 88,000m³급 VLGC 3척을 발주하며 노후 선대 교체에 나선다고 보도됨. 계약 규모는 총 4,478억원으로 척당 약 1억1,600만달러 수준이며, 선박은 2030년 말까지 순차 인도될 예정이라고 전해짐. Dorian LPG는 올해 VLGC 4척을 매각해 3억4,000만달러 이상을 확보했으며, 이번 발주를 통해 선대 현대화 전략을 본격화한다고 알려짐.

태국, 최대 4 조 규모 호위함 도입 이르면 이번 주 윤곽...K조선, 막판 수주 총력 (뉴시스)

<https://zrr.kr/wcGG5C>

태국 해군의 4,000톤급 차기 호위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막판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됨. 한화오션은 기존 푸미폰급 호위함 납품 실적과 OCEAN-40F를, HD현대중공업은 약 40% 수준의 현지 생산과 기술이전 전략을 앞세워 경쟁력을 제시했다고 전해짐. 이번 사업은 약 7,300억원 규모의 초도 물량을 시작으로 후속 발주 시 최대 4조원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동남아 해군 시장의 핵심 수주전으로 알려짐.

인하대·조선 3사, 극지 운항 선박 핵심기술 개발 추진 (연합뉴스)

<https://zrr.kr/li4mdl>

인하대학교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한국선급과 함께 극지 운항 선박의 핵심 기술인 빙하중 및 쇄빙 영향 예측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고 보도됨. 이번 공동 연구는 북극 항로와 극지 자원 개발 확대에 대응해 선박의 안전성과 설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산학 협력 프로젝트로 전해짐. 연구팀은 조선소 · 선급 · 학계의 협력을 통해 극지 대응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조선업의 극지 선박 경쟁력 강화에 나설 예정으로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